

# 책 전문가들의 목가적인 사냥터, 런던 도서전

출판관계자들의 기호에 맞춘 다채로운 기획력 돋보여

김지원 | 출판칼럼니스트

책 언저리에서 일하는 영국인들에게 3월은 바쁜 달이다. 지난달 14일 '세계 책의 날' 행사는 일반인의 독서 분위기를 북돋우려는 축제였지만, 17일부터 3일간 열린 '런던 도서전'은 책 전문가들만의 잔치였다. 런던 남서쪽 올림피아 지하철역에서 내린 사람들의 발길이 모두 바로 앞 전시장 올림피아 홀로 향한다. 3만원의 입장료로 받은 배지를 달고 문을 들어서면 행사 요원들이 바코드를 긁어 그날그날의 참가자 수를 기록한다. 우리나라 코엑스 전시장만한 넓이의 행사장에 빼곡이 들어찬 1백여개국 2만여 참여사의 스탠드를 찾아다니느라 1만 여명 전문가들의 발길이 어지럽게 부딪힌다.

## 다양한 기획으로 출판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 줘

1971년 22개사가 참여한 단 하루 동안의 행사로 시작된 '런던 도서전'의 역사는 1999년을 분수령으로 점차 확대, 지난해에 이어 올해 가장 많은 참가사들이 참여해 유럽 책잔치의 절정을 이뤘다. 해외 참여도는 더욱 높아져 29%가 증가했다. 프랑스, 스페인, 독일, 뉴질랜드, 벨기에 등 유럽뿐만 아니라 캐나다, 사이프러스, 중국, 아시아 각국까지 범위가 넓어졌다. 바와 카페, 전시사무실이 있어 비교적 한산했던 2층까지 스탠드를 설치해 출판과 서점 솔루션 영역을 새로 마련했다.

런던 도서전의 성장은 북적거리는 국제 저작권 센터에서도 확인된다. 지난해 불과 56개였던 테이블이 368개로 늘어나 각국 에이전

트들이 모여들었다. 특히 뉴욕 9·11사건의 영향으로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참가율이 푹 떨어졌던 미국 출판사들의 런던부귀는 뚜렷했다. 저작권 센터 테이블의 3분의 1을 미국 회사들이 예약했을 정도다.

전시회 안팎에선 출판 전문인을 위한 세미나와 토론이 줄을 이었다. 'Epub 런던 2002'가 14일부터 올림피아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려, 전자출판에 대한 열띤 논의로 도서전 분위기를 돋웠다. 16일 출판 연합과 북셀러 후원으로 열린 런던 저작권 심포지엄은 잠재 시장의 가능성이 큰 러시아에 초점을 맞췄다. 행사 당일부터 이벤트는 좀더 구체적인 테마를 내걸었다. 작가가 되려는 사람들을 겨냥한 듯한 '어떻게 출판할까' 행사는 《데일리 메일》이 후원한 비교적 대중적인 행사였는데, 조안 헤리스 같은 유명작가들이 나와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했다. 또 '어떻게 언론을 공략할 것인가'를 놓고, 광고인·출판인들은 서평, 인터뷰 등이 과연 대중성을 확보하고, 책 판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가를 토론했다. 올해는 아프리카출판에 관한 다채로운 세미나가 집중적으로 열려 특이한데, '변화하는 시간, 변화하는 아프리카'를 주제로 아프리카 1백대 베스트 북과 출판유통 문제 등을 논의했다. 재미있는 이벤트도 양념처럼 곁들인다. 점심시간 즈음 '뉴스 포 유' 행사엔 작가, 언

론인들이 패널로 나와 생생하고 재미있는 뉴스 퀴즈행사를 벌이고, 첫날의 성공적인 마감을 축하하는 무료 '도서전 맥주파티'를 열었으며, '문학의 밤' 행사도 빠지지 않았다.

## 얼굴 맞대며 상거래의 신용 쌓아가

도서전에는 출판인, 에이전트는 물론 서점과 도서관, 프리랜서와 언론·잡지 편집인들까지 신선한 아이디어 사냥에 나선다. 영국의 많은 잡지들은 대개 마감일이 출간월보다 3, 4개월 정도 앞서니, 올해 하반기 나올 책들을 알려주는 카탈로그는 아주 중요한 보물이다. 《코스모폴리탄》《쉬》《이브》같은 잡지들은 대개 전기와 자서전에



런던 도서전은 1999년 이후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 책 전문가들을 위한 도서전으로 자리잡았다. 사진은 도서전이 열린 올림피아 홀 내부.

주목하는데, 《이브》는 시, 사진, 대중과학 등 책으로 꾸며지는 섹션이 여럿이다.

첨단의 디지털 시대에 옛날식 소통방식을 고수하는 도서전은 무슨 의미인가. 모든 일이 온라인으로 해결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얼굴을 맞대고 무릎을 부딪치며 책 이야기하길 좋아한다. 여전히 상거래의 신용과 신뢰는 악수를 나누며 확인된다. 성공이 지나쳐 전문가들에겐 치열하고 드넓은 비즈니스의 장이기에 한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비하면, 런던 도서전에는 좀더 목가적인 만남이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도서전의 폐쇄성을 비판하기도 한다. 일반인들은 런던 영화제나 런던 패션축제는 알아도 런던 도서전은 모른다. 신문 기사는 물론 서점에조차 흔한 포스터 한 장 붙어 있지 않다. 전문가들이 스스로 알아 찾아올 뿐이다. 규모가 더욱 커지면서 런던 도서전이 열린 대중문화 행사로 거듭나야 한다는 논의가 아주 조심스럽게 일고 있다. 겸양한 독서 이벤트조차 비즈니스를 방해할까 두려워하는 모습은, 대대적인 판매경쟁으로 어지러운 우리의 경우와 정반대라 오히려 신선하다. ■